

죽산보 해체 반기지 않는 나주 시민들 왜?

토론회서 '영산강 수위 낮아져 황포돛배 운항 중단·농업용수 부족' 지역경제 타격 우려 속 곳곳 '죽산보 사수' 현수막 등 반대 목소리 "보 없었을 때도 농사 짓기·홍수 예방 문제 없었다"...찬성 입장도

지난 13일 방문한 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는 '가뭄 해결의 보루 죽산보를 사수하자!' '죽산보 철거하면 영산강은 도랑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10여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만 해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황포돛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던 '홍어의 거리'는 최근 관광객의 발길이 뜸 끊기면서 삭막함마저 느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죽산보의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황포돛배의 선착장

이 영산포에서 하루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강건희(70) 영산포 상인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영산포에선 황포돛배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주말이면 500-600명씩 몰려오던 관광객이 사라졌고, 상권도 죽었다"며 "죽산보를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다시 활황할텐데 정부에서 해체까지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민 임종기(80·나주시 다시면)씨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데, 보 개방 이후 영산강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죽산보 인근 농가 절반 이상은 영산강 물을 양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까지 해체돼 버리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주 시민들 중심으로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주 시민들은 대책 위원회를 꾸려 죽산보 해체를 추진중인 환경부 등을 상대로 반대 행동을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주민 수십명은 죽산보 철거 반대를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민 대표자 4명과 이

학영(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장) 전남대 교수,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관계자 등 패널 7명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정섭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죽산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 250억원과 양수 등 물이용 대책 비용 250억원 등 총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수질·생태개선, 유지 관리비용의 절감 등으로 1000억원의 이익이 생겨 보를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교수는 "죽산보는 충분한 농업용수, 어로활동, 황포돛배 관광, 홍어의 거리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죽산보 해체에 관한 논의는 조사평가 내용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산강 죽산보.

앞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향 공청회'에서도 농업용수 확보 등을 우려한 주민 의견과 환경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의견이 맞섰다. 주민들은 영산포에서 황포돛배 운항 중단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죽산보 완전 개방에 따라 영산포 인근 영산강 수위가 낮아지며, 황포돛배는 죽산보 하류인 '다아 선착장'에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착장이 외진 곳에 있는 탓에 이용객은 하루 평균 20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황포돛배의 이용객은 2016년 2만8281명, 2017년 2만 6779명, 2018년 2만3047명으로 한달 평균 2000명 수준이었지만 선착장이 이동한 후 올해 1월 316명, 2월 535명 등으로 급감했다. 양치권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위원회장은 "지역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책상에만 앉아서 환경 운운하며 보 해체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15일 전후로 죽산보 철거 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 합동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죽산보 해체를 권고했다. 보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나주·김용희·정병호 기자 kimyh@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마련 광주 남구의회, 조례 발의

광주시 남구의회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1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인석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쳐진다. 조례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적용범위 및 시대조사 등을 담고 있으며,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날 하주아 의원은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남구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 가진 반납하면 다른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3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주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은?' 토론회에서 나주 시민들이 '죽산보를 사수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죽산보 해체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박상기 범무 "몰카, 가장 나쁜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 방침 확인...승리·정준영 오늘 동시 출석 악성루머 휩싸인 정유미·이청아·오연서 등 법적 대응 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포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서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엔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준영은 14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경찰에 동시 출석한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결국 이날 소속사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방출됐다. 정준영과 연관된 악성 루머에 휩싸인 여배우 정유미(35)와 이청아(35), 오연서(32) 등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갑룡 경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최고위층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 감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기록을 공익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카오톡) 내용을 봤을 때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국 관계자는 "그 당시 카톡방에 있는 내용 전부를 살펴보면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를 사진 찍고 했다. 그래서 경찰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봐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카톡방에는 승리, 정준영을 비롯한 클럽 비닝전 직원 등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고 경찰총수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장'이라는 점에서, 경찰 고위직을 지칭하는 오기(謬記)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은 이날 과거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복원했던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카톡 대화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화장실 갔다 왜 늦게 와" 난투극

○족구게임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나왔다 이유는 난투극을 벌인 절 없는 50대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한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B(56)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간 뒤 10여분만에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 ○-A씨는 B씨를 바닥에 엎어지지만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에 맞서 B씨도 욕설과 함께 A씨의 목을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 10여분간 머물러 나온 것을 두고 시비가 된 듯 하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순창서 60대 실종...경찰, 이틀째 수색에도 못 찾아

전북 순창에서 실종된 60대를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에 나섰다. 순창경찰은 13일 순창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력 100여명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순창군 인계면 일대에서 실종된 박모(65)씨를 찾고 있다. 경찰은 헬기까지 띄워 넓은 범위를 수색하려 했으나 바람이 거세 이륙시도를 중단했다. 서울에 사는 박씨의 아들은 지난 11일

오후 "순창에 홀로 사는 아버지가 지난달 28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실종신고 이후로 꺼진 상태에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찾을 때까지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손해보험협회